통일신문

통일신문

“규제완화 통한 개발 등 실질적인 해법 모색해야”

(사)강원미래전략연구원, 제1차 강원도 현안 토론회

기사입력시간 : 2021/08/30 [16:14:00]

강유미 기자

DMZ는 세계유일의 관광자원의 보고로 안보, 역사문화, 생태, 평화, 경제적 가치 등이 무한하다.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강원미래전략연구원이 27일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제1차 강원도 현안 토론회에서 ‘DMZ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박병직 한림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적인 콘트롤 타워, 권역별 개발방안과 세계평화의 최 일선 무대로서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장 대응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관광산업의 피해상황을 진단하고, 포스트코로나 관광시장의 메가트렌드 변화를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여 관광시장 위기극복을 위한 디지털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에 인천, 수원, 대구, 전남 등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이 선정되어 70억 이상의 정부지원 사업 추진을 소개하며, 관광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강원도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DMZ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에서 박병직 한림대 교수는 DMZ는 세계유일의 관광자원의 보고로 안보. 역사문화. 생태. 평화. 경제적 가치 등이 무한함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적인 콘트롤 타워와 권역별 개발방안 마련을 주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기술을 활용한 VR, AR, AI, BIG DATA 등을 통한 DMZ 스마트 관광 추진을 설명했다. 또한 세계평화의 최 일선 무대로서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상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강원도에의 시사점’에서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최근 거론되는 토지공개념의 부활에 대하여 세계 주요국의 제도와 이념을 소개하며, 토지의 가치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생존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사태 이후 외지인들의 강원도지역의 부동산 투기현상을 우려하며, 임야가 타도에 비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의 공적 성격 부여를 제시했다.

김주삼 대진대 교수는 ‘강원도 접경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역대 정부의 DMZ문제 접근은 정치적 선언적 의미로 그쳤을 뿐,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DMZ문제는 ▲강원도에서는 법적 한도 내에서 실현가능성 있는 전략 ▲북핵문제가 계속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극복 대안으로 정부는 북한 비핵화 위한 유엔과 공조체제 강화 ▲지자체는 민통선 내 생태조사, 규제완화 통한 개발 등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진 토론은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장 사회로 김영표 관동대 교수, 김남현 관동대교수, 김병수 순천향대 초빙교수, 김철래 전 농협강릉시지부장 등이 나섰다. 함께한 시민들도 열띤 질의와 토론을 전개하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의 이정표를 만들어 냈다.

강유미 기자